

# 2021년 제6회 이사회 시·도회장합동회의 회의록

1. 일 시 : 2021. 5. 31(월) 16:00 ~ 19:00

2. 장 소 : 줌 화상회의

3. 참석자 : 총 13명

○ 회 장 : 임종규 회장,

○ 부회장 : 한선(수석), 홍경화, 정영재, 이병우

○ 이 사 : 서영범, 박두희, 윤선중

○ 시·도회장 : 안상성, 정상석, 황동길, 고영대, 유영만

○ 간 사 : 김재식

4. 보고사항

가) 전차회의록 보고

나) 업무보고

5. 심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전기안전연합회 현안 검토의 건

-5월 21일 실시한 대행업계 발전을 위한 대행세미나에서 기술인협회에서 준비한 연합회 활성화를 통한 대행업 발전방안 주요 내용이 안전연합회에서 추구하는 발전방안과 다름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을 교환하다.

- ① 기술인협회의 의도를 고려하면 기술인협회장의 의중을 재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전국적인 조직 구성과 통합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 ③ 기술인협회에서 세미나 전부터 안전연합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암시를 주었고 이제는 통합추진위에 대한 것을 토론해야 한다.
- ④ 미활동, 미조직 시도회가 활성화되려면 안전연합회 조직이 전국적 조직이 아니므로 연합회 입장만을 주장하지 말고 통합을 위한 협의에서는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고집할 경우 기술인협회에서 별도 조직을 구성할 것이므로 그럴 경우 기술인협회와 연결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이제는 전국적인 조직활성화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며 항의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
- ⑥ 이번 세미나는 안전연합회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된 점들에 대하여 기술인협회에 항의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정통성을 지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⑦ 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때 기술인협회의 의도가 분명하므로 항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조직 활성화를 위한다면 새 임원으로 구성해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하는 것은 오산이다.

- ⑧ 기술인협회장이 대외적으로 선언한 내용을 지렛대로 삼아 조치를 취하는게 필요하고 새 집행부는 안에서 구성해야지 밖에서 구성하는 것은 안된다. 어떻게 하든 안전연합회의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 의장이 전체조직 합류 방안에 대하여 기술인협회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아래의 의견들이 있었으며 우리의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거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우리의 입장을 기술인협회에 표명하기로 하다.
- ① 연합회에 법과 규정이 있으므로 타의에 휘둘리거나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갈 이유도 없고 분명히 우리 입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 ② 유감표명을 하고, 통합추진위가 구성된다면 기술인협회의 의중을 존중하되 안전연합회가 구심점이 되어 협의하도록 하자.
  - ③ 심도 있고 심각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리를 잘 해서 창구역할을 할수 있는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여러번 만나서 발전 방안을 추진해 가자.
  - ④ 통합추진위원회보다 발전위원회가 적합한 명칭인거 같다.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연합회에서 하고 A~Z까지 논의할 수 있게 하자.
- 의장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게 많지만 대행업 발전 명제하에 발전 위원회를 시·도회장들로 구성하고 한선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하다.

위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하였음을 확인함.

2021. 5. 31

한국전기안전연합회

회장 임종규 ⑨

수석부회장 한선 ⑨

부회장 홍경화 ⑨